

묵주 기도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편집팀

로사리오 기도

라틴어로 묵주는 '장미 밭'이라는 뜻의 Rosarium(로사리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사리오 기도라고 할 때 'Rosario'는 '장미 꽃다발' 혹은 '장미 화환'을 가리키지요. 한마디로 묵주 기도는 장미 꽃다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치 장미꽃을 한 송이씩 바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묵주 한 알 한 알을 굴리며 정성껏 올리는 기도가 바로 묵주 기도입니다.

묵주 기도의 유래

초기 교회 은수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시편을 50편, 100편 또는 150편씩 매일 외웠는데 이때 작은 돌멩이나 곡식 낱알을 머리에 쓰이는 관처럼 둥글게 엮어 하나씩 굴리며 기도의 횟수를 세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글을 모르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은수자처럼 기도를 하고는 싶지만 글을 몰라 시편을 외울 수 없었던 이들은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바쳤다고 하네요. 그들도 기도의 횟수를 세기 위해 열매나 구슬 150개를 가는 줄에 꿰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관습들이 묵주 기도를 탄생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12세기 삼중 기도가 널리 보급될 때,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도 매우 깊어져 주님의 기도 대신 성모송을 50번 혹은 150번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수를 세기 위해 가는 줄에 구슬 등을 꿰어 사용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열 번째 알을 좀 더 크게 하여 성모송 10번 마다 주님의 기도를 한 번씩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3세기부터는 여기에 영광송이 삽입되었습니다. 성모송 열 번마다 영모송을 한 번 하는 식이었습니다.

대체로 오늘날과 같은 묵주 기도가 등장한 것은 15세기부터입니다. 150번의 성모송을 연속적으로 바치면서 예수나 마리아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순간들을 묵상하는 '도미니코의 묵주 기도'가 그 예입니다.

묵주 기도 신심

묵주 기도 신심은 성모 마리아의 발현으로 널리 전파됩니다. 1830년 파리에서 보석 반지를 낀 성모님이, 또 1846년에는 라 살레트에서 장미로 만든 화관을 두른 성모님이 발현하셨고, 1858년 루르드에서는 아예 성모님께서 묵주를 가지고 나타나 직접 베르나데트라는 소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교황들도 묵주 기도 신심에 힘을 보탬니다. 1883년 교황 레오 13세는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묵주 기도를 바칠 것을 호소하였고, 교황 비오 10세는 묵주 기도만큼 아름다운 기도도 없으며 매일 정성스럽게 바치라고 신자들에게 말하였지요.

이후 1917년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서는 매일 묵주 기도를 15단씩 바치면 전쟁이 끝나고 죄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묵주 기도의 어머니'라고 지칭하기까지 하셨다네요.

묵주 기도를 잘하는 방법

묵주 기도는 성모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며,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쉽게 바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그리고 2002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때 추가된 빛의 신비까지 총 네 가지의 신비로 묵주 기도의 묵상 방향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신비만 입으로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묵주 기도를 할 때는 그 신비에 담긴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를 진심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비의 뜻을 깊이 새기지도 않고 단순히 입으로 말만 한다면 묵주 기도를 하는 의미가 없겠지요. 각 신비에 담긴 내용을 마음 깊이 새기며, 여기에 하느님께 올리는 우리의 지향을 덧붙인다면 아주 풍성한 묵주 기도가 될 것입니다.

■참고
「가톨릭 대사전」 5권 '묵주 기도'
「가톨릭 디다케」 2008년 10월 '빠기 신부의 교리 더하기'

